

도서관인의

窓

# 2006, 책 읽기와 함께 하는 즐거운 겨울방학

- 독서지도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

| 김선 이\*



## 제7차 교육과정의 구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과 학교도서관의 잠재적 역할을 접목하고자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수립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독서교육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삼으며 학교도서관이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화 등 제반 여건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독서교육 정책의지와 학교도서관 환경 변화에 따라 정독도서관 학교도서관지원과에서는 다양한 독서활동을 펼치며 독서교육 목표달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 서울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는 2001년부터 학교도서관지원과를 한시 기구로 운영하다가 2004년부터 학교도서관지원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시 기구화(정독, 남산, 양천, 강서, 동대문도서관)하였다.

학교도서관지원과에서는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를 지역별로 분담하였는데 정독도서



〈독서활동 결과 우수 작품들을 정독도서관에서 전시한 모습〉

관 학교도서관지원과에서는 학교도서관 수서·정리 업무, 도서목록 DB구축, 신간도서목록 작성·배포, 도서관 담당자 교육, 진급처리, 장서점검,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근래에는 지원 내용을 확대하여 서울 시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독서교육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 방학 중 독서활동 사례

2005년도부터 방학 중 독서활동을 실시하여 독서흥미를 유발하고 책 읽는 습관을 유도하는 뜻 깊은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2006년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5주간 서울상천초등학교 등 15개교 초등 2~3학년

\* 정독도서관 학교도서관지원과 사서, rlatjsdl71@naver.com

## 독서교육 활동의 반응과 보람

긴장된 마음으로 시작한 겨울방학 독서활동이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꾸밈없이 밝은 표정과 반응들을 접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다.

학교마다 독서활동에 대한 관심도에 차이가 있고 아이들의 태도와 반응들도 달랐는데, 각기 다른 환경과 반응 속에서 '자신의 소중함'과 '꿈'에 관한 주제를 놓고 조금씩 적용을 달리해 가며 독서활동을 진행하는 마음은 사뭇 고무적이었다.

독서지도에 관심이 많은 담당교사와 몇몇 학부모들은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를 희망하여 아이들과 독서활동 수업을 함께 하였다. 독서활동 참여자의 형태도 우수한 학생을 담임교사가 추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부모의 권



〈친구의 작품 발표에 귀 기울여 보아요〉



〈'강아지 똥'을 읽고 만들레 꽃과 강아지 똥을 만들어요.〉

269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책읽기와 함께하는 겨울방학 독서활동'을 실시했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을까?』, 『나도 무엇인가 쓰일 데가 있을 거야』, 『내가 지키고 싶은 약속』, 『작고 나약한 것들의 힘』 등 날짜별로 프로그램 내용을 달리하였고, 〈꽃밭 만들기〉, 〈타임캡슐 만들기〉, 〈점묘화 그리기〉, 〈사포지에 그림 그리기〉 등 직접 만들고 꾸밀 수 있는 활동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작품을 여러가지 방법과 매체로 감상하며 책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하고 독후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력을 이끌어 낼 수가 있었다. 또한 작품 발표 시간을 가져 표현력 증진은 물론 자신감을 다잡을 수 있었으며 다른 사람의 작품 발표들을 들음으로써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할 수가 있었다.



〈타임캡슐을 만들어 꿈을 넣어 돌려요.〉



〈재미있는 독서퀴즈, 내가 답할래요〉

유나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수업 분위기가 다소 산만하여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활동적이고 산만한 아이들일 수록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 아이들을 독서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느껴진다.

미래에는 기존의 지식을 암기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닌 가공하고 재창조하는 창의적인 인간상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의 아이들도 교과서 속의 지식에서 탈피하여 무한한 지식의 창고인 '책' 속에서 자신들의 꿈과 능력을 한껏 발휘하는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TV, 인터넷, 컴퓨터 게임 등 영상매체의 범람으로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는 독서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많은 시간과 노력과 깊은 생각을 요하는 책 읽기보다 감각적인 영상매체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는 아이들의 사고력과 집중력은 점점 단순화되고 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산만하여 짧은 시간밖에 집중할 수 없는 아이들을 그동안 훈계로, 정적인 어른들의 눈높이로 가르치려고만 하지는 않았을까? 어른들의 경직되고 정체된 사고로 고정관념에 쌓여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의 세계와 창의력을 짓밟지는 않았을까?

독서활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아이들의 태도와 반응들을 접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동적이고 활기찬 수업으로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독서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독서활동들을 통해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독서 습관화를 길러 평생학습의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독서교육의 기본 목표인 자기주도적 독서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을 점묘화로 꾸몄어요, 청운초 아이들〉

이번 독서활동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재인식 할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독서활동 이후 달라지고 변화된 아이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순수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아이들에게 다음 기회에는 더욱 알차고 영근 수업을 위하여 독서지도 관련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 정독도서관 학교도서관지원과 직원들은 지금부터 〈2006년 즐거운 여름방학 독서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월1회 학습동아리 모임을 개최하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 독서 활동과 앞으로의 과제

독서교육은 누가, 어떻게 시킬 것인가?

가정의 부모가, 학교의 선생님이, 도서관 사서들이 서로 협력해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발전적 방향에서의 독서교육을 정착시키고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방학 중 독서활동에 참가하여 함께했던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아이들에게 지면으로나마 고마움과 애정을 가득 담아 보낸다. 아울러 방학 중임에도 함께하며 도움을 주신 학교 담당 교사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공공도서관 사서로서의 비전과 책임수행을 다짐해 본다. (☺)